

‘김치 도시 광주’ 부끄러운 김치산업

‘김치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정작 김치산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김치축제를 선점하고 세계 김치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25년 간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김치산업은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1.7%에 그치고, 수출 비중은 고작 전국의 0.03%다. 세계김치축제가 단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김치의 명품화·세계화로 나아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광주지역에선 30개 김치 업체가 5428t을 생산했다. 생산액은 172억8219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생산액 1조323억9939만원(958개 업체, 생산량 44만9545t)의 1.7% 규모다.

2015년 28개 업체 84억원, 2016년 30개 업체 127억원보다 성장했지만, 전국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가 221개 업체 12만8337t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충북(8만 1530t), 강원(4만1402t), 경남(4만254t), 충남(3만5750t), 경북(3만3128t), 인



광주 김치산업의 민낯

생산량 5428t·172억원
전국의 1.7%
수출 2600t·1만8900달러
전국의 0.03%

세계김치축제 열고 김치연구소 유치 ... 25년 간 수백억 투자 김치산업은 ‘바닥’ ... 명품화·세계화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천(1만8877t), 전남(1만6411t), 전북(1만3842t), 부산(1만2604t), 서울(6611t), 대전(5569t) 순이었다. 광주는 대구(3795t), 울산(2835t), 제주(2630t), 세종(542t)보다 조금 앞섰다. 호남권에서도 광주는 꼴찌다. 전남이 3.7%, 전북 3.1%를 차지했다.

수출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 25t, 9만5700달러로 전국 비중 0.13%를 차지했던 수출이 2016년 1만1700t, 5만4000달러로 반토막 났다. 2017년에는 2600t, 1만

8900달러를 수출해 또 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이처럼 광주김치의 수출 감소는 김치업체들이 영세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의 해외공장 진출 및 수출 강화로, 영세업체의 경우 수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상, 삼진, CJ 등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함만 탓할 수는 없다는 지적

이다. 광주시가 지난 1994년부터 집행한 광주세계김치축제 예산이 196억3100만원에 달하고, 광주명품김치산업화 22억 3000만원, 광주김치산업화 육성 8억8000만원, 김치 원부재료생산단지 지원 1억 6000만원, 김치타운 건립 346억원, 세계 김치연구소 유치·건립 182억원, 김치전통 발효식품단지 조성 80억원 등을 합하면 김치산업에 투자한 예산이 70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전국 유일 김치복합테마파크를 표방하는 광주김치타운 관리도 엉망이다. 김치타운 내 입점한 A업체는 지난 1월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공동 납품 심의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위생상태 불량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입점했던 B업체는 사용자 1500여명원을 제남에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앞서 2015년 입점했던 C업체도 사용자 제남에 따라 입점이 취소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김치타운은 공유재산으로 광주시가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광주 학생들에게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김치를 전국화·세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 6회 달빛 소나기 ‘광주’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년 문화교류 소통의 장

광주와 대구 지역 간 상상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2019 달빛 소나기-광주’를 오는 6월 29일(토)~30일(일) 개최합니다.

달빛은 ‘달구벌’로 불리는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며,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함축한 말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대구 지역 청년 문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19 달빛소나기-광주’가 광주와 대구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 062-220-0541

- ▶ 일 시 : 2019년 6월 29일(토) ~ 30일(일)
- ▶ 장 소 : 광주신안파크호텔 외 광주 일원
- ▶ 주요 프로그램

6월 29일(토)	달빛소통 & 달빛나눔	14:00~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15:00~18:00	멘토톡 & 공감콘서트
6월 30일(일)	달빛기쁨	19:00~21:00	프린지페스티벌&대인아시장 투어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청춘발산마을, 환벽당 등)

- ▶ 주 최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 ▶ 주 관 : 아시아문화
- ▶ 후 원 : 광주일보, 영남일보

光州日報社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 인사태풍 예고

문무일 총장 5기수 후배 ‘파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데다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웃을 벗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후보자는 총참모관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2013년 체포 절차 상부 보고 문제로 갈등



“무거운 책임감 느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을 겪다 직무배제를 거쳐 대구고검 등지로 좌천됐지만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장으로 발탁됐으며 다시 2년 만에 검찰총장에 지명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 SRF 갈등 해소 진전... 시험 가동 의견 접근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 환경 5km 내 법정동 대상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9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애초 거론됐던 시험 가동과 관련, 기간을 줄여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향후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이날 전담 실무자간 협의차 나주혁신도시 9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민 참관인, 전남도, 나주시 등이 참석했다. 다만, 주민 보고대회를 열고 시험 가동이 필요한지 여부와 가동 기간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회의 때 논의하자는 범대위측 입장

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 때 발표하겠다는 난방공

사측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험 가동을 위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와 관련, ‘환경 5km 내 법정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10차 거버넌스’를 열고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시험 가동 여부와 주민수용성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불친절 여전하다 ▶6면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 네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HNT 하나투어

우리 가족여행의 첫 단추! 무안공항에서 더 가깝게 떠나자!

하나팩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몽골

1,099,000원~

올리바타르/테렐지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5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8월13, 17일 3박5일

블라디보스톡

799,000원~

블라디보스톡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3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2박4일 3박5일

홍콩/마카오

599,000원~

홍콩/마카오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3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2박4일 3박5일

마카오

399,000원~

마카오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3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2박4일 3박5일

일본

후쿠오카

569,000원~

후쿠오카 3일,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3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2일 3박4일

※ 7월 20일부터 운항예정

오미타

529,000원~

오미타/유우인벳부 3일,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3,00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2박4일 3박5일

동남아/대만

보라카이

502,000원~

보라카이 4일 5일 라카엘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4일 4박5일

세부

529,000원~

세부 5일, 6일 솔레이리조트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화요일 3박5일 4박5일

다낭

549,000원~

다낭/로이안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목요일 3박4일

상해

329,000원~

상해/양주/가라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4일 4박5일

상해/왕산

549,000원~

상해/왕산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4일 4박5일

상해/장가계

999,000원~

상해/장가계/완가계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4일 4박5일

상해/계림

1,069,000원~

상해/계림 4일 5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4일 4박5일

오사카

679,000원~

오사카/고토나라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월,수,목요일 3박4일

도쿄

599,000원~

도쿄/오코야마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목요일 3박4일

방콕

399,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수,목요일 3박5일 4박5일

대만

490,000원~

대만/키우펀/야루 4일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4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매일 3박4일

코타키나발루

699,000원~

코타 5일, 6일 사내 존특급

한자투어 가이드+기사경비 530·선택경비 있음

운행일 목요일 3박5일, 일요일 4박5일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품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준비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 [유품할증료] 유품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여행 상품] 특별여행 상품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비 단계별 국가 지정 한한! ■ 여행 자유, 여행 자체, 필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